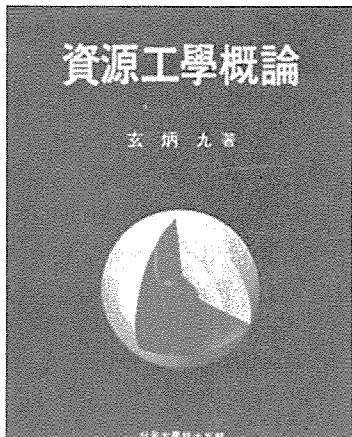


신간안내



자원공학개론

玄炳九 지음

에너지전쟁, 자원보호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90년대의 세계 각국 자원정책은 국가경제의 존망과 직결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와 안정공급, 그리고 자원관련기술의 자립내지 선진화는 장차 에너지와 자원문제로 인해 경제사회발전이 장애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견, 제거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자원공학의 입문서가 희귀한 우리의 학문풍토에서 에너지와 광물, 기타 지하자원을 분류하여 그 특징 및 국내외의 부존상황과 생산추이 등을 소개하고 자원공학의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신국판 / 226쪽 / 6,000원 / 서울대학교출판부 펴냄>



원자력이야기

李龍水 지음

'88년 7월부터 '89년말까지 동아일보에 「원자력 시대에 산다」라는 장기시리즈를 쓴 저자(동아일보과학부장)가 자료를 더 보완하여 일반대중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쉽게 쓴 글이다.

현대의 문명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발전정도가 판가름나게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고, 국민적 재인식과 참여 그리고 원자력 정책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방사능의 오염과 누출·폐기물 처리등)은 현대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하나 매우 신중하고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국판 / 256쪽 / 3,200원 / 보고퍼냄>

정보사회의 기업문화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보사회와 기업문화

李御寧의 지음

정보시대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업문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현 문화부장관인 李御寧씨를 비롯하여 경영, 문화,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통신공사의 존재의의와 기업이념 그리고 행동원리와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화 물결을 맞은 오늘의 모든 한국기업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제5의 경영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문화에 대해 깊이 있고 실증적인 연구가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을 사는 많은 경영자와 직장인들에게 자신의 경영과 직장인으로서의 사고 및 행동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리라 본다. <신국판 / 344쪽 / 3,500원 / 한국전기통신공사 펴냄>